

기출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할 것

『PSAT 기출문제는 회독수를 늘릴 생각을 해선 안된다.』

→ 한번 풀 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자

→ 자주 풀게 되면, 문제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갈 수 없게 된다.

『한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 스스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떠한 것을 중점에 둘것인지,

→ 어떤식으로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관통력을 이용한다면』

→ 자료를 볼 때, 통일된 습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 보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 만약, 관(점)과 통(일된 습관)이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년도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더하기, 빼기 연습, 그리고 곱셈값 암기와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자.

계산속도 UP을 위한 숫자 암기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2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2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20	70	140	80	160	90	18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3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30	20	60	30	90	40	120	50	1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3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80	70	210	80	240	90	27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4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40	20	80	30	120	40	160	50	2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4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240	70	280	80	320	90	36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5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50	20	100	30	150	40	200	50	2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5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300	70	350	80	400	90	45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구구단	2	3	4	5	6	7	8	9
2	4	6	8	10	12	14	16	18
3	6	9	12	15	18	21	24	27
4	8	12	16	20	24	28	32	36
5	10	15	20	25	30	35	40	45
6	12	18	24	30	36	42	48	54
7	14	21	28	35	42	49	56	63
8	16	24	32	40	48	56	64	72
9	18	27	36	45	54	63	72	81

11~19의 제곱수	
11×11	121
12×12	144
13×13	169
14×14	196
15×15	225
16×16	256
17×17	289
18×18	324
19×19	361

분수	소수	%값	배율
$\frac{1}{2}$	0.500	50.0%	2배
$\frac{1}{3}$	0.333	33.3%	3배
$\frac{1}{4}$	0.250	25.0%	4배
$\frac{1}{5}$	0.200	20.0%	5배
$\frac{1}{6}$	0.166	16.6%	6배
$\frac{1}{7}$	0.143	14.3%	7배
$\frac{1}{8}$	0.125	12.5%	8배
$\frac{1}{9}$	0.111	11.1%	9배
$\frac{1}{10}$	0.100	10.0%	10배
$\frac{1}{11}$	0.091	9.1%	11배
$\frac{1}{12}$	0.083	8.3%	12배
$\frac{1}{13}$	0.077	7.7%	13배
$\frac{1}{14}$	0.071	7.1%	14배
$\frac{1}{15}$	0.067	6.7%	15배
$\frac{1}{16}$	0.063	6.3%	16배
$\frac{1}{17}$	0.059	5.9%	17배
$\frac{1}{18}$	0.056	5.6%	18배
$\frac{1}{19}$	0.053	5.3%	19배
$\frac{1}{20}$	0.050	5%	20배

문 1. 다음은 회계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19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2018년보다 29건 감소하였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규정 개정 후에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11.4%)하였다. 2019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2% 감소하였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최대 32건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7년 11월 포상금 규정 개정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보 기>

ㄱ. 회계부정행위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		44	93	64
전년 대비 증가율		-	111.4	-31.2

ㄴ. 연도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 추이(2013 ~ 2016년)

ㄷ.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 규정

(단위: 만 원)

구분 \ 시점		최대 포상금 한도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
2017년 11월 규정 개정	개정 후	50,000	100,000
	개정 전	5,000	10,000

ㄹ.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만 원)

구분 \ 연도	2008 ~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지급 건수	6	2	2	1	2	13
지급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제 유형>

필요 형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ㄱ = 회계부정 신고 현황 (17~19년)

ㄴ = 연도별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 추이 (13~16년)

ㄷ = 신고시 포상금

ㄹ = 포상금 지급 현황

<관점의 적용>

2019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2018년보다 29건 감소하였다. → 보기 ㄱ (17~19년의 정보)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규정 개정 후에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
→ 보기 ㄴ (신고시 포상금)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2% 감소하였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최대 32건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7년 11월 포상금 규정 개정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 보기 ㄱ (13~16년의 정보)

답 : ④

문 2. 다음 <표>는 ‘갑’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공종의 공법별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총공사비를 최소화하도록 공법을 적용할 때, 총공사기간은?

<표> 공종의 공법별 공사기간 및 항목별 공사비
(단위: 개월, 억 원)

구분 공종\공법	공사기간	항목별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토공사	A	4	6	4
	B	3	5	3
	C	3	5	3
골조공사	D	12	20	14
	E	14	20	15
	F	15	24	16
마감공사	G	6	30	10
	H	7	24	12

<조 건>

- 공종, 공법, 항목별 공사비는 각각 제시된 3가지, 8종류, 3항목만 있음.
- 공사는 세 가지 공종을 모두 포함하고, 공종별로 한 종류의 공법만을 적용함.
- 항목별 공사비는 해당 공법의 공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해당 항목의 총비용임.
- 총공사기간은 공종별로 적용한 공법의 공사기간의 합이고, 총공사비는 공종별로 적용한 공법의 항목별 공사비의 총합임.

- ① 22개월
- ② 23개월
- ③ 24개월
- ④ 25개월
- ⑤ 26개월

<문제 유형>

<통일된 습관>

공사비 최소화

<관점의 적용>

<공통과 차이>
공종은 총 3가지이기에 각각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토공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통	4	5	3
A(차이)	0	1	1
B(차이)	3	0	0
C(차이)	1	0	0

→ 가장 저렴한 것은 C

골조공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통	24	20	14
D(차이)	6	0	0
E(차이)	0	0	1
F(차이)	0	4	2

→ 가장 저렴한 것은 E

골조공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통	50	24	10
G(차이)	0	6	0
H(차이)	0	0	2

→ 가장 저렴한 것은 H

공사 기간 = C(3) + E(14) + H(7) = 24개월

답 : ③

문 3. 다음 <표>는 2017 ~ 2019년 ‘갑’대학의 장학금 유형(A ~ E)별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17 ~ 2019년 ‘갑’대학의 장학금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장학금 유형 구분			A	B	C	D	E
학기							
2017년	1학기	장학생 수	112	22	66	543	2,004
		장학금 총액	404	78	230	963	2,181
	2학기	장학생 수	106	26	70	542	1,963
		장학금 총액	379	91	230	969	2,118
2018년	1학기	장학생 수	108	21	79	555	1,888
		장학금 총액	391	74	273	989	2,025
	2학기	장학생 수	112	20	103	687	2,060
		장학금 총액	404	70	355	1,216	2,243
2019년	1학기	장학생 수	110	20	137	749	2,188
		장학금 총액	398	70	481	1,330	2,379
	2학기	장학생 수	104	20	122	584	1,767
		장학금 총액	372	70	419	1,039	1,904

※ ‘갑’대학의 학기는 매년 1학과 2학기만 존재함.

<보 기>

- ㄱ. 2017 ~ 2019년 동안 매학기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금 유형은 1개이다.
- ㄴ. 2018년 1학기에 비해 2018년 2학기에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모두 증가한 장학금 유형은 4개이다.
- ㄷ. 2019년 2학기 장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장학금 유형은 B이다.
- ㄹ. E 장학금 유형에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가장 많은 학기는 2019년 1학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각 년도는 1학과 2학기로 구성됨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매학기 장학생수가 증가하는 유형은 없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장학생수와 장학금에 감소가 존재하는 유형은 1가지인가?

B의 경우만 장학생수가 감소하였다. → 옳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에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E 장학금의 경우 2019년 1학기가 장학생(2188)과 장학금(2379)모두 가장 높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4. 다음 <표>는 2019년 ‘갑’회사의 지점(A ~ E)별 매출 관련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회사의 지점별 매출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 지점	A	B	C	D	E	전체
매출액	10	21	18	10	12	71
목표매출액	15	26	20	13	16	90
직원수	5	10	8	3	6	32

※ 목표매출액 달성률(%) = $\frac{\text{매출액}}{\text{목표매출액}} \times 100$

<보 기>

- ㄱ.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지점은 D이다.
- ㄴ. 목표매출액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C이다.
- ㄷ. 지점 매출액이 5개 지점 매출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지점은 3곳이다.
- ㄹ. 5개 지점의 매출액이 각각 20 %씩 증가한다면, 전체 매출액은 전체 목표매출액을 초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졌다.

<관점의 적용>

- 보기 ㄱ (후보군)
- 직원 1인당 매출액 = $\frac{\text{매출액}}{\text{직원}}$
- $D(\frac{10}{3} = 3\uparrow)$ 3보다 높은 지점은 없다 → 옳다.
-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 보기 ㄷ (단순 확인)
- 5개 지점의 매출이 각각 20%증가한다면?
- 전체의 매출액도 20%가 증가한다.
- $\frac{90}{71} = \frac{60 + 30}{50 + 21} > 1.2$
- 20%가 증가하여도, 목표매출액보다 적다. → 옳지 않다.
-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 보기 ㄴ (단순 확인)
- 매출액 평균을 초과의 개수가 3곳인가?
- 매출액 3등 = E(12)
- 만약 3개가 평균을 초과한다면, 3등이 5개인 경우보다 전체가 작을 것이다. 3등이 5개면(60), 전체보다 작다 옳지 않다.
-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5. 다음 <표>는 A ~ C가 참가한 사격게임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1 ~ 5라운드 후 A의 총적중 횟수의 최소값과 C의 총적중 횟수의 최대값의 차이를 구하면?

<표> 참가자의 라운드별 적중률 현황
(단위: %)

참가자 \ 라운드	1	2	3	4	5
A	20.0	()	60.0	37.5	()
B	40.0	62.5	100.0	12.5	12.5
C	()	62.5	80.0	()	62.5

※ 사격게임 결과는 적중과 미적중으로만 구분함.

<조 건>

- 1, 3라운드에는 각각 5발을 발사하고, 2, 4, 5라운드에는 각각 8발을 발사함.
- 각 참가자의 라운드별 적중 횟수는 최소 1발부터 최대 5발까지임.
- 참가자별로 1발만 적중시킨 라운드 횟수는 2회 이하임.

- ① 10
- ② 11
- ③ 12
- ④ 13
- ⑤ 14

<문제 유형>

<통일된 습관>

1,3 라운드는 1발당 20%의 적중률이 올라간다.
2,4,5 라운드는 1발당 12.5%의 적중률이 올라간다.
참가자별로 1~5발을 맞췄고,
1회를 적중시킨 라운드는 2회 이하다.

<관점의 적용>

A의 경우 최소로
C의 경우 최대로

	1	2	3	4	5
A	1	?	3	3	?
C	?	5	4	?	5

→ 조건 때문에, 1발을 맞춘 라운드는 최대 2개만 가능하다.
A의 경우 이미 1발을 맞춘 라운드가 1개 존재한다.
A를 최소값으로 만들기 위한
2라운드와 5라운드 숫자 쌍은 = (1, 2), (2, 1) 이다.
 $A = 1+1+3+3+2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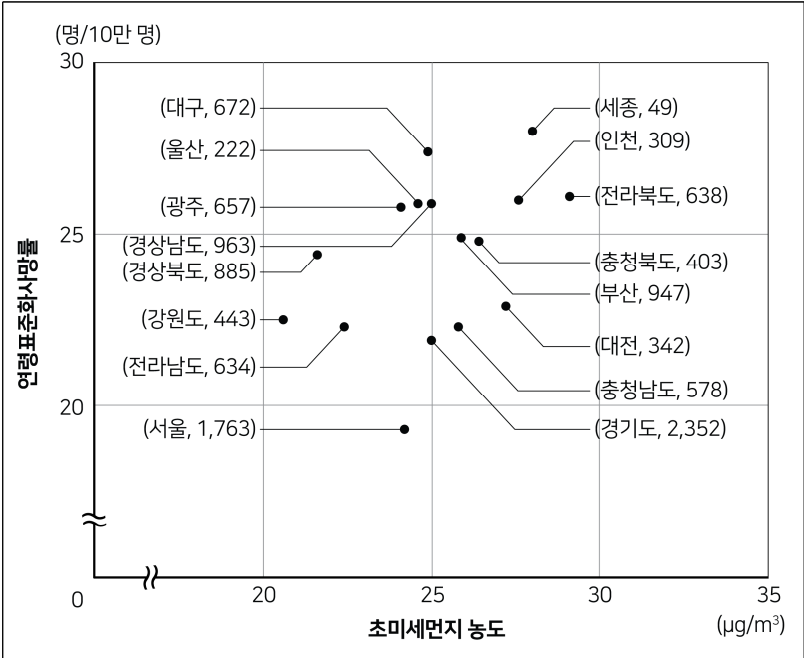
C의 경우 이미 1발을 맞춘 라운드가 0개 존재한다.
C를 최대값으로 만들기 위한
1라운드와 4라운드 숫자 쌍은 = (5, 5), (5, 5) 이다.
 $C = 5+5+4+5+5 = 24$

$24-10 = 14$ 이다.

답 : ⑤

문 6. 다음 <그림>은 2015년 16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연령표준화사망률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그림>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연령표준화사망률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 1) (지역, N)은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N 명임을 의미함.
 2)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을 의미함.

<보 기>

- ㄱ.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 ㄴ. 연령표준화사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적다.
- ㄷ.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충청북도보다 많다.
- ㄹ. 대구는 부산보다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높지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적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x축과 y축에 생략이 존재한다.
 y축의 경우 사망률이기 때문에, 사망자수의 비교는 불가하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사망자수에 대한 비교는 불가하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x값과 y값은 비례관계가 아니다. → 옳지 않다.
 ③,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답 : ⑤

문 7. 다음 <표>는 2018년과 2019년 14개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8년과 2019년 14개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 수
(단위: 척)

연도	톤급		1톤 미만	1톤 이상 2톤 미만	2톤 이상 3톤 미만	3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5톤 미만
	지역						
2019	부산		746	1,401	374	134	117
	대구		6	0	0	0	0
	인천		98	244	170	174	168
	울산		134	378	83	51	32
	세종		8	0	0	0	0
	경기		910	283	158	114	118
	강원		467	735	541	296	179
	충북		427	5	1	0	0
	충남		901	1,316	743	758	438
	전북		348	1,055	544	168	184
	전남		6,861	10,318	2,413	1,106	2,278
	경북		608	640	370	303	366
	경남		2,612	4,548	2,253	1,327	1,631
	제주		123	145	156	349	246
2018	부산		793	1,412	351	136	117
	대구		6	0	0	0	0
	인천		147	355	184	191	177
	울산		138	389	83	52	33
	세종		7	0	0	0	0
	경기		946	330	175	135	117
	강원		473	724	536	292	181
	충북		434	5	1	0	0
	충남		1,036	1,429	777	743	468
	전북		434	1,203	550	151	188
	전남		7,023	10,246	2,332	1,102	2,297
	경북		634	652	372	300	368
	경남		2,789	4,637	2,326	1,313	1,601
	제주		142	163	153	335	250

- 2019년 경기의 5톤 미만 어선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0 % 미만이다.
- 2019년 대구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미만’ 어선 수는 전년보다 감소한다.
- 2018년 대구, 세종, 충북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이상 2톤 미만’부터 ‘4톤 이상 5톤 미만’까지 톤급이 증가할수록 어선 수는 감소한다.
- 2018년과 2019년 모두 ‘1톤 이상 2톤 미만’ 어선 수는 충남이 세 번째로 크다.
- 2018년과 2019년 모두 ‘1톤 미만’ 어선 수 대비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 수의 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 1톤미만의 경우 910 → 946 10%미만의 증감률
1톤이상 2톤미만의 경우 283 → 330 10%이상의 증감률
2톤이상 3톤미만의 경우 158 → 175 10%이상의 증감률
3톤이상 4톤미만의 경우 114 → 135 10%이상의 증감률
4톤이상 5톤미만의 경우 118 → 117 10%미만의 증감률
→ 1톤이상 2톤미만의 경우 대략 20정도가 넘친다.
→ 2톤이상 3톤미만의 경우 대략 10정도가 넘친다.
→ 3톤이상 4톤미만의 경우 대략 10정도가 넘친다.
→ 넘치는 40을 1톤미만이 받아 주기에 충분하다.
→ 옳다.
(※ 풀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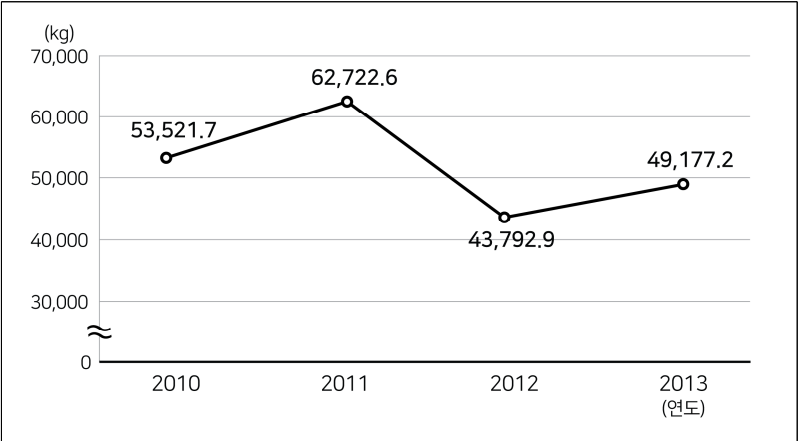
답 : ①

문 8. 다음 <표>는 2008 ~ 2018년 ‘갑’국의 황산화물 배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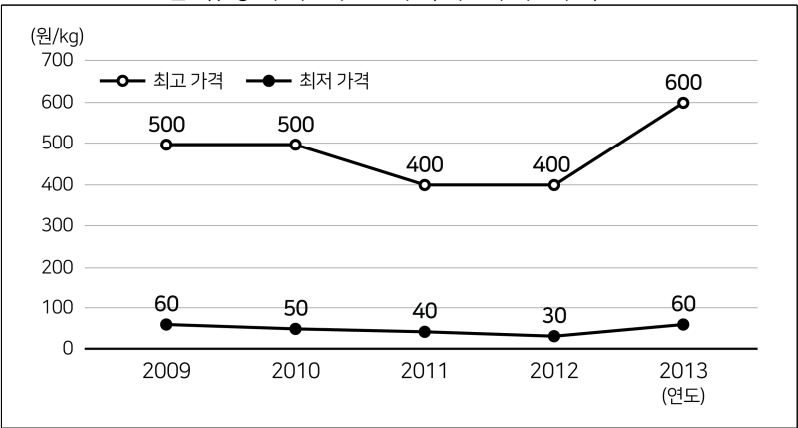
<표> 2008 ~ 2018년 ‘갑’국의 황산화물 배출권 거래 현황
(단위: 건, kg, 원/kg)

연도	전체		무상거래		유상거래				
	거래 건수	거래량	거래 건수	거래량	거래 건수	거래량	거래가격		
							최고	최저	평균
2008	10	115,894	3	42,500	7	73,394	1,000	30	319
2009	8	241,004	4	121,624	4	119,380	500	60	96
2010	32	1,712,694	9	192,639	23	1,520,055	500	50	58
2011	25	1,568,065	6	28,300	19	1,539,765	400	10	53
2012	32	1,401,374	7	30,910	25	1,370,464	400	30	92
2013	59	2,901,457	5	31,500	54	2,869,957	600	60	180
2014	22	547,500	1	2,000	21	545,500	500	65	269
2015	12	66,200	5	22,000	7	44,200	450	100	140
2016	10	89,500	3	12,000	7	77,500	500	150	197
2017	20	150,966	5	38,100	15	112,866	160	100	124
2018	28	143,324	3	5,524	25	137,800	250	74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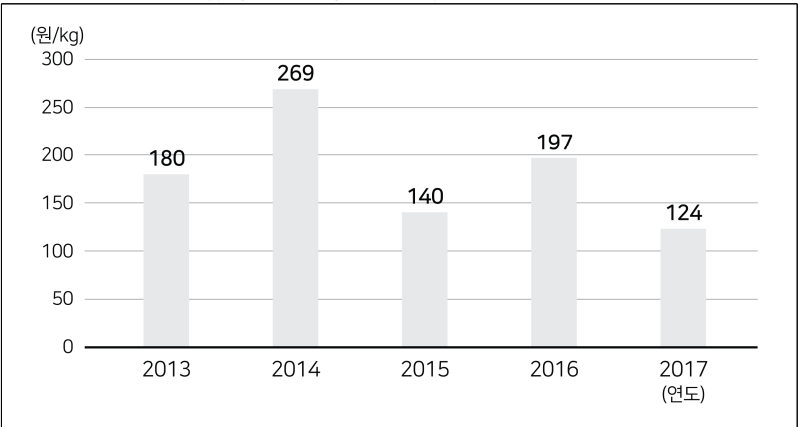
① 2010 ~ 2013년 연도별 전체 거래의 건당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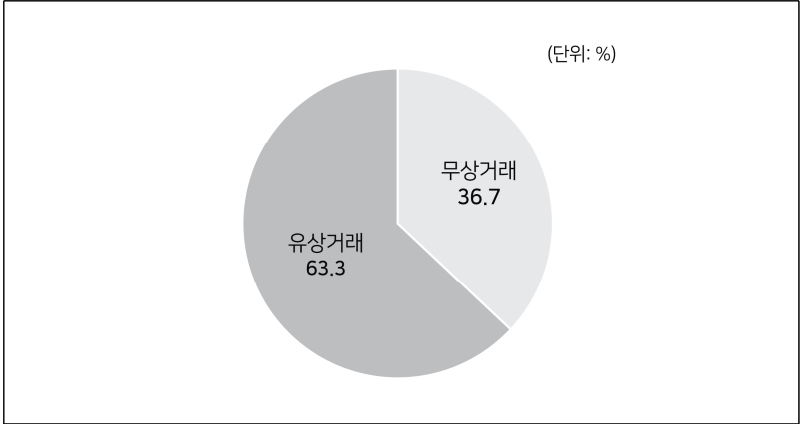
② 2009 ~ 2013년 유상거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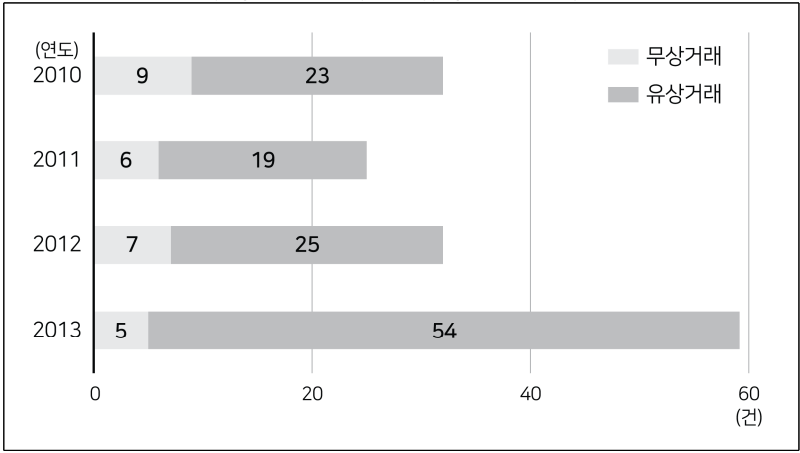
③ 2013 ~ 2017년 유상거래 평균 가격



④ 2008년 전체 거래량 구성비



⑤ 2010 ~ 2013년 무상거래 건수와 유상거래 건수



<문제 유형>

- 표 → 차트변환형
-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져있다.
거래가격의 경우 최고, 최저, 평균이 주어짐

<관점의 적용>

보기 ②
2011년의 최저 가격의 경우 표에서는 10인데,
차트에서는 40이다 → 옳지 않다.

답 : ②

문 9. 다음 <표>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탈모 증상 경험 여부와 탈모 증상 경험자의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탈모 증상 경험 여부

구분		응답자 수 (명)	탈모 증상 경험 여부(%)		
			있음	없음	
성별	남성	743	28.8	71.2	
	여성	757	15.2	84.8	
연령대	20대	259	4.6	95.4	
	30대	253	12.6	87.4	
	40대	295	21.4	78.6	
	50대	301	25.6	74.4	
	60대	392	37.0	63.0	
성별 、 연령대	남 성	20대	136	5.1	94.9
		30대	130	16.2	83.8
		40대	150	30.0	70.0
		50대	151	35.8	64.2
		60대	176	49.4	50.6
	여 성	20대	123	4.1	95.9
		30대	123	8.9	91.1
		40대	145	12.4	87.6
		50대	150	15.3	84.7
		60대	216	26.9	73.1

- ※ 1) 무응답과 복수응답은 없음.
2)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탈모 증상 경험자의 탈모 증상 완화 시도 여부 및 방법

구분		응답자 수 (명)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					시도 하지 않음 (%)
			모발 관리 제품 사용	민간 요법	치료제 구입	병원 진료	미용실 탈모 관리	
성별	남성	214	38.8	14.0	9.8	8.9	4.2	49.1
	여성	115	45.2	7.0	2.6	4.3	11.3	44.3
연령대	20대	12	50.0	0.0	16.7	16.7	16.7	0.0
	30대	32	62.5	12.5	6.3	9.4	9.4	25.0
	40대	63	52.4	7.9	6.3	12.7	7.9	36.5
	50대	77	46.8	15.6	10.4	5.2	10.4	39.0
	60대	145	26.2	11.7	6.2	4.1	2.8	62.8
부모의 탈모경험 여부	있음	236	47.0	14.8	8.1	7.2	8.9	41.1
	없음	93	24.7	4.3	7.5	7.5	1.1	62.4
탈모 증상의 심각성	심각함	150	45.3	16.0	13.3	13.3	10.0	34.0
	심각하지 않음	179	36.9	7.8	2.8	2.2	2.8	58.1

- ※ 1) 무응답은 없으며,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에 대한 복수응답을 허용함.
2)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남녀 각각 연령대가 높을수록 탈모 증상 경험자의 비율도 높다.
② 탈모 증상 경험자 중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으로 미용실 탈모 관리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③ 탈모 증상 경험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탈모 증상 완화를 시도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④ 탈모 증상 경험자 중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70 % 이상이다.
⑤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 중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57명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1>의 탈모증상 경험 여부의 분모동일 방향은 →이다.

<표1>의 탈모증상 경험자값은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2>의 분모동일 방향은 → 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남성의 경우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탈모 증상 경험 여부 있음 의 비율이 늘어난다. → 옳다.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미용실에서 탈모 관리를 받았다.

= 응답자수 × 미용실 관리

남성 = 214 × 4.2

여성 = 115 × 11.3

응답자 수는 비슷하므로, 후순위로 미루자.

28.8 × 4.2 VS 15.2 × 11.3

응답자수 경우 2배($\frac{214}{115}$)차이가 안나는데

미용실 관리는 2배($\frac{11.3}{4.2}$)이상 차이난다. → 여성이 더 많다.

→ 옳지 않다.

답 : ②

문 10. 다음 <표>는 도입과 출산을 통한 반달가슴곰 복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도입과 출산을 통한 반달가슴곰 복원 현황
(단위: 개체)

구분		생존	자연적응	학습장	폐사	전체	폐사원인
도입처	러시아	13	5	8	9	22	자연사: 8 울무: 3 농약: 1 기타: 3
	북한	3	2	1	4	7	
	중국	3	0	3	1	4	
	서울대공원	6	5	1	1	7	
	청주동물원	1	0	1	0	1	
	소계	26	12	14	15	41	
출산방식	자연출산	41	39	2	5	46	자연사: 4 울무: 2
	증식장출산	7	4	3	1	8	
	소계	48	43	5	6	54	
계		74	55	19	21	95	-

- ※ 1) 도입처(출산방식)별 자연적응률(%)

$$= \frac{\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자연적응 반달가슴곰 수}}{\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전체 반달가슴곰 수}} \times 100$$
- 2) 도입처(출산방식)별 생존율(%)

$$= \frac{\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생존 반달가슴곰 수}}{\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전체 반달가슴곰 수}} \times 100$$
- 3) 도입처(출산방식)별 폐사율(%)

$$= \frac{\text{도입처(출산방식)별 폐사 반달가슴곰 수}}{\text{도입처(출산방식)별 전체 반달가슴곰 수}} \times 100$$

<보 기>

- ㄱ. 도입처가 서울대공원인 반달가슴곰의 자연적응률은 자연출산 반달가슴곰의 자연적응률보다 낮다.
- ㄴ. 자연출산 반달가슴곰의 생존율은 90 %를 넘는다.
- ㄷ. 반달가슴곰의 폐사율은 자연출산이 증식장출산보다 낮다.
- ㄹ. 도입처가 러시아인 반달가슴곰 중 적어도 두 개체의 폐사원인은 ‘자연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전체와 소계가 주어짐,
 폐사원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짐
 적응률, 생존률, 폐사율은 모두 분모 동일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text{서울대공원의 자연적응률} = \frac{6}{7}$$

$$\text{자연출산의 자연적응률} = \frac{41}{46}$$

$$\rightarrow \frac{6}{7} = \frac{42}{49} \text{ VS } \frac{41}{46} \rightarrow \text{기울기법}$$

$$\frac{1}{3} \text{ VS } \frac{41}{46} \rightarrow \text{자연 출산이 더 크다} \rightarrow \text{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러시아 반달가슴곰 출신 폐사 ∩ 폐사원인 자연사(최소로)
 러시아 반달가슴곰 출신 폐사(9)을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모두
 넣자. → 7마리가 울무, 농약, 기타에 들어간다.
 즉, 2마리는 무조건 자연사이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11. 다음은 세계 및 국내 드론 산업 현황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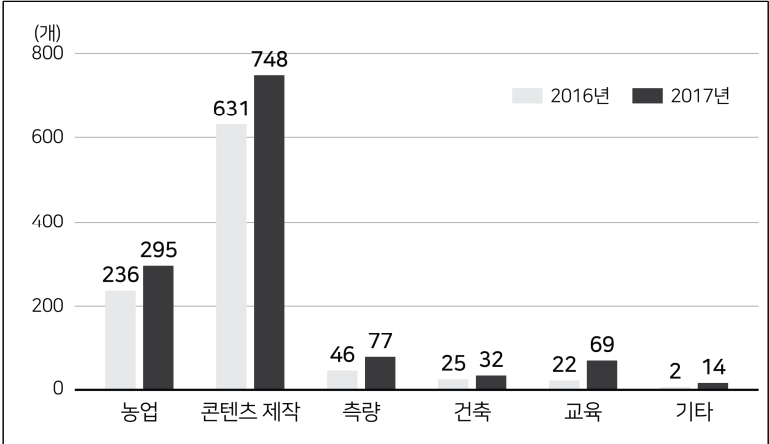
<보고서>

세계의 드론 산업 시장은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2013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는 유럽 시장보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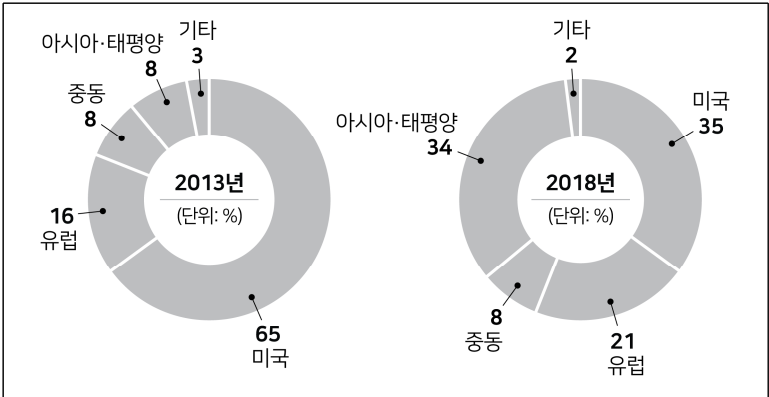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분야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농업과 콘텐츠 제작 분야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80 % 이상을 차지하였고, 사업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교육 분야가 농업과 콘텐츠 제작 분야보다 각각 높았다.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산업의 주요 관리 항목을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종자격 취득자수, 장치신고 대수, 드론 활용 사업체수 순이다.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R&D 예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5 ~ 2017년 기술 분야별로 정부 R&D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기반기술과 응용서비스기술의 예산 비중의 합은 매년 65 % 이상이다.

① 2016 ~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분야별 사업체수 현황



② 2013년과 2018년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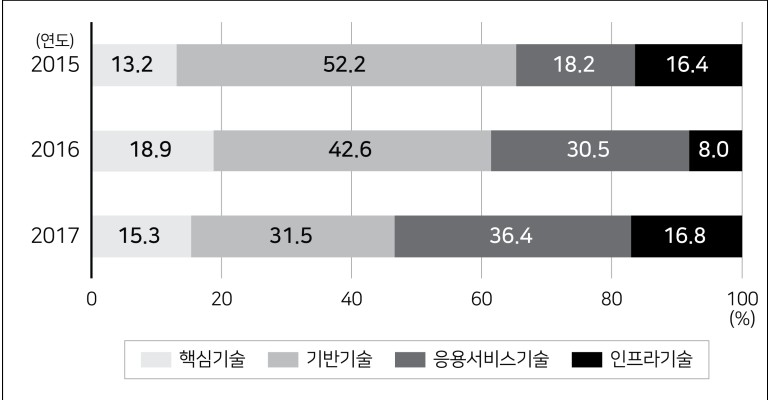


③ 2015 ~ 2017년 국내 드론 산업 관련 민간 R&D 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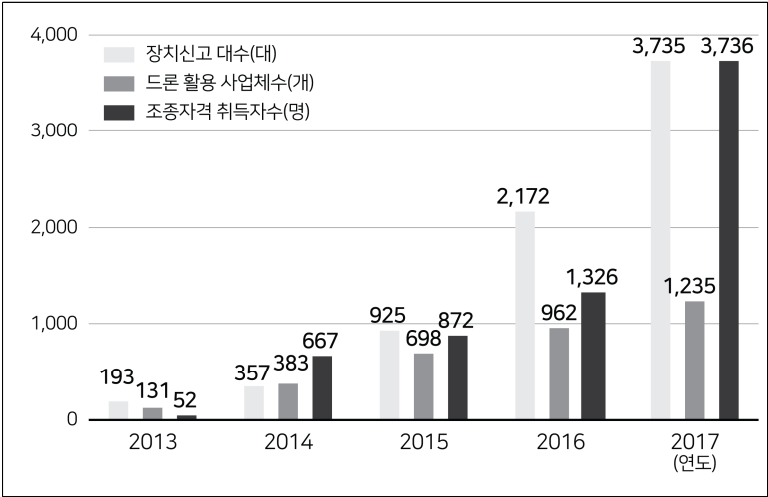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대기업	2,138	10,583	11,060
중견기업	4,122	3,769	1,280
중소기업	11,500	29,477	43,312

④ 2015 ~ 2017년 국내 드론 산업 관련 기술 분야별 정부 R&D 예산 비중 현황



⑤ 2013 ~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산업의 주요 관리 항목별 현황



<문제 유형>

필요 형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① = 국내 드론 활용 분야

② = 세계 드론시장 점유율

③ = 민간 R&D 투자 현황

④ = 정부의 R&D 투자 현황

⑤ = 국내 드론 주요 관리 항목

<관점의 적용>

2013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는 유럽 시장보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 → 보기 ②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분야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농업과 콘텐츠 제작 분야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80 % 이상을 차지하였고, → 보기 ①

2017년 국내 드론 활용 산업의 주요 관리 항목 → 보기 ⑤

정부 R&D 예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보기 ④

답 : ③

문 12. 다음 <표>는 A대학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A대학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명, 점)

학년	항목		전공	교양	시설	기자재	행정
	응답인원						
1	2,374		3.90	3.70	3.78	3.73	3.63
2	2,349		3.95	3.75	3.76	3.71	3.64
3	2,615		3.96	3.74	3.74	3.69	3.66
4	2,781		3.94	3.77	3.75	3.70	3.65

※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보 기>

- ㄱ. ‘시설’과 ‘기자재’ 항목은 응답인원이 많은 학년일수록 항목별 교육 만족도가 높다.
- ㄴ. 항목별로 교육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학년을 나열할 때, 순서가 일치하는 항목들이 있다.
- ㄷ. 학년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1개이다.
- ㄹ. 각 학년에서 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모두 ‘전공’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1~4학년으로 구성,
만점은 5점

<관점의 적용>

보기 ㄱ (순위)
응답인원 순위 = 4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시설 순위 = 1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시설 순위 = 1 2 4 3
기자재 순위 = 1 2 4 3
→ 시설과 기자재가 같다. → 옳다.
(※ 굳이 풀어야 할까?)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모두 전공에서 가장 높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13. 다음 <표>는 2017 ~ 2019년 '갑'국 A ~ D 지역의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과 지역별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지역별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 (단위: g)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A	50	60	75
B	100	100	110
C	100	90	80
D	50	50	50

※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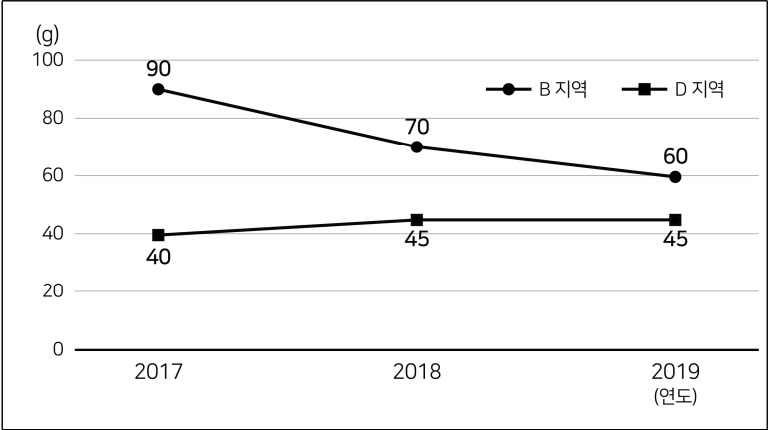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1인 1일당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 (단위: g)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A	25	25	25
B	10	30	50
C	20	20	20
D	10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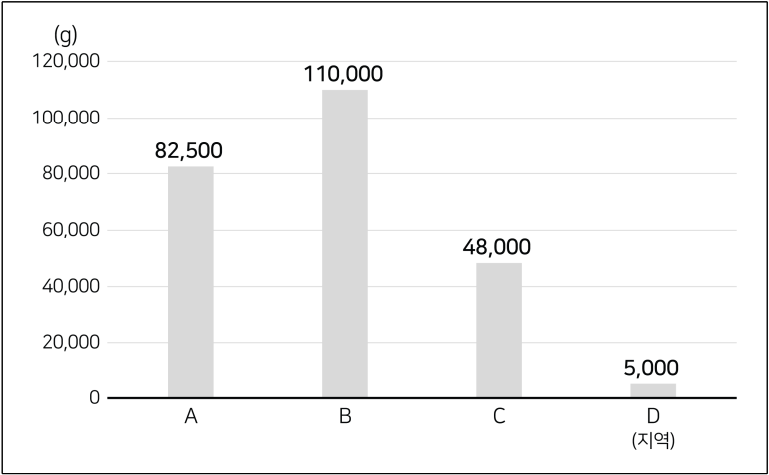
<표 3> 지역별 전체 인구 (단위: 명)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A	1,000	1,000	1,100
B	1,000	1,000	1,000
C	800	700	600
D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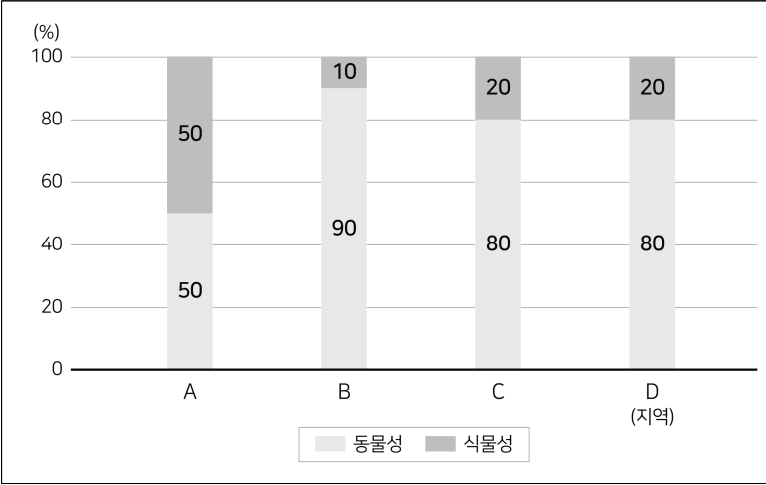
① 2017 ~ 2019년 B와 D 지역의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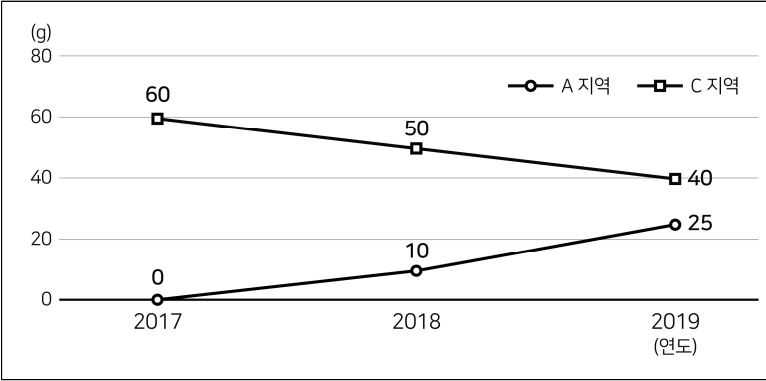
② 2019년 지역별 1일 단백질 총섭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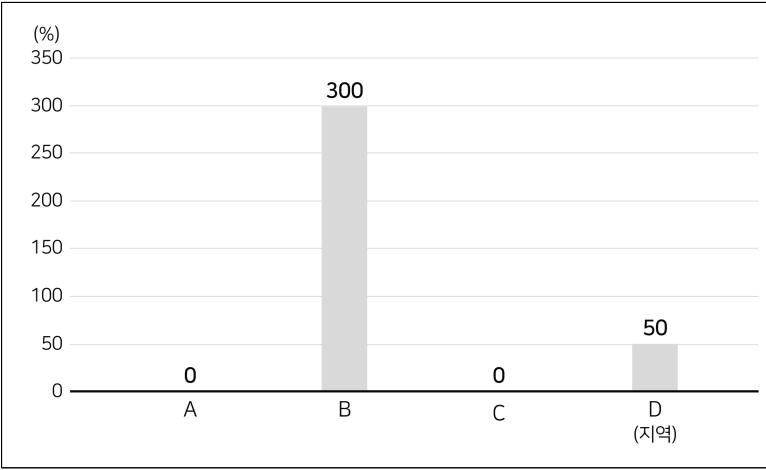
③ 2017년 지역별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 구성비



④ 2017 ~ 2019년 A와 C 지역의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1인 1일당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차이



⑤ 지역별 2017년 대비 2018년 1인 1일당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 증감률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표1> - <표2> =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관점의 적용>

보기 ⑤(올올올-2)

올올올 -2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너무 쉽게 풀릴 것이다.

B의 경우 2017($\frac{10}{1000}=0.01$) → 2018($\frac{30}{1000}=0.03$)

증가율 = $\frac{0.03-0.01}{0.01}=2 \rightarrow 300\%$ 가 아니라 200%이다.

→옳지 않다.

답 : ⑤

문 14. 다음 <표>는 2016 ~ 2019년 ‘갑’국의 방송통신 매체별 광고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2016 ~ 2019년 방송통신 매체별 광고매출액
(단위: 억 원)

매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세부 매체				
방송	지상파TV	15,517	14,219	12,352	12,310
	라디오	2,530	2,073	1,943	1,816
	지상파DMB	53	44	36	35
	케이블PP	18,537	17,130	16,646	()
	케이블SO	1,391	1,408	1,275	1,369
	위성방송	480	511	504	503
	소계	38,508	35,385	32,756	31,041
온라인	인터넷(PC)	19,092	20,554	19,614	19,109
	모바일	28,659	36,618	45,678	54,781
	소계	47,751	57,172	65,292	73,890

<보 기>

- ㄱ. 2017 ~ 2019년 동안 모바일 광고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30 % 이상이다.
- ㄴ. 2017년의 경우, 방송 매체 중 지상파TV 광고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온라인 매체 중 인터넷(PC) 광고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
- ㄷ. 케이블PP의 광고매출액은 매년 감소한다.
- ㄹ. 2016년 대비 2019년 광고매출액 증감률이 가장 큰 세부 매체는 모바일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소계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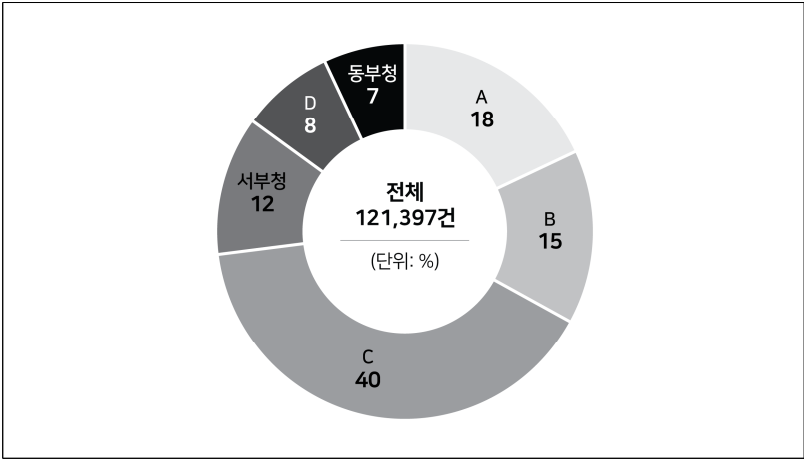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2016 → 2017
방송의 경우 38508 → 35385 → 감소하였다.
온라인 경우 47751 → 57172 → $\frac{57172}{47751} = \frac{52000 + 5172}{40000 + 7751} < 1.3$
30% 이하 증가했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2017년, 방송 매체 중 지상파 TV의 비중 = $\frac{14219}{35385}$
2017년, 온라인 매체 중 인터넷의 비중 = $\frac{20554}{57172}$
→ 지상파 TV의 경우 40%정도이지만, 인터넷의 경우 40%↓이다. → 지상파가 더 높다. → 옳지 않다.
③, ④번 선지 소거

답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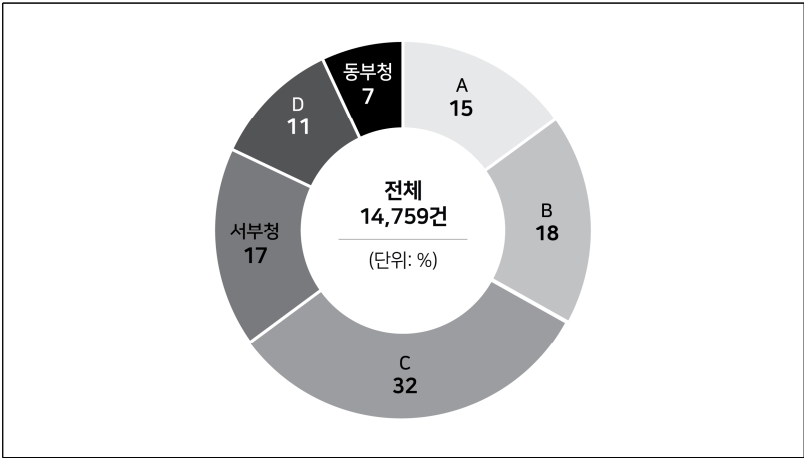
문 15. 다음 <그림>은 ‘갑’국 6개 지방청 전체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과 <조건>을 근거로 B와 D에 해당하는 지방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 1> 부동산 압류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



※ 지방청은 동부청, 서부청, 남부청, 북부청, 남동청, 중부청으로만 구성됨.

<그림 2> 자동차 압류건수의 지방청별 구성비



<조 건>

- 자동차 압류건수는 중부청이 남동청의 2배 이상이다.
- 남부청과 북부청의 부동산 압류건수는 각각 2만 건 이하이다.
- 지방청을 부동산 압류건수와 자동차 압류건수가 큰 값부터 순서대로 각각 나열할 때, 순서가 동일한 지방청은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이다.

- | | | |
|---|-----|-----|
| | B | D |
| ① | 남동청 | 남부청 |
| ② | 남동청 | 북부청 |
| ③ | 남부청 | 북부청 |
| ④ | 북부청 | 남부청 |
| ⑤ | 중부청 | 남부청 |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그림1>은 원형차트, 분모동일 방향이다.
분모 = 121,397건
<그림2>은 원형차트, 분모동일 방향이다.
분모 = 14,759건

<관점의 적용>

조건 ① (계산이 아닌 가공)
분모동일 방향이므로, 비중 값으로 보자.
중부청 > 2 × 남동청
중부청, 남부청으로 가능한 쌍
(C,A) (C,B), (C,D), (A,D) → 보기에는 중부청이 없어야한다.
→ 보기 ⑤번 선지 소거

조건 ② (계산이 아닌 가공)
남부청과 북부청의 부동산 압류 건수는 각각 2만이건 이하
→ 비중이 작은 순으로 3번째가 2만건 이하일까?
 $\frac{20000}{121397} = \frac{18,000 + 2,000}{100,000 + 21,397} < 18\% \rightarrow \text{아니다}$
B와 D = 남부청과 북부청
→ 보기 ①, ②번 선지 소거

조건 ③ (순위)
부동산 압류 건수 순위
C A B 서부청 D 동부청
C B 서부청 A D 동부청
→ 순위가 같은 것 = C, D, 동부청
D = 남부청
→ 보기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16. 다음 <표>는 조사연도별 국세 및 국세청세수와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국세 및 국세청세수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조사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2	1,039,678	966,166	876,844	89,322
2007	1,614,591	1,530,628	1,479,753	50,875
2012	2,030,149	1,920,926	1,863,469	57,457
2017	2,653,849	2,555,932	2,499,810	56,122

<표 2>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조사연도	징세비	국세청 직원수
2002	817,385	15,158
2007	1,081,983	18,362
2012	1,339,749	18,797
2017	1,592,674	19,131

<보고서>

2017년 국세청세수는 255.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 원 증가하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으로 높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 2위는 수영세무서(10.9조 원)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세수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서, 2002년 기준 9.2%와 비교해 감소하였다. 국세는 국세청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2년 기준 92.9%였던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2017년에는 96.3%로 3.0%p 이상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2007년 8,336백만 원, 2017년 13,360백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7년 기준 0.62원으로 2002년 0.85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현재 19,131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청 직원수는 2002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보 기>

- ㄱ. 2003 ~ 2016년의 국세 및 국세청세수
- ㄴ. 2003 ~ 2016년의 관세청 소관분
- ㄷ. 2017년의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 ㄹ. 2002 ~ 2017년의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 필요 형
-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표1>과 <표2> 모두 매년으로 구성 X

<관점의 적용>

이미 주어진 정보는 없음.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으로 높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 2위는 수영세무서(10.9조 원)이다.

→ 보기 ㄷ

국세는 국세청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 보기 ㄱ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2007년 8,336백만 원, 2017년 13,360백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7년 기준 0.62원으로 2002년 0.85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 매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2007, 2017, 2002년 내용이다.

답 : ②

문 17. 다음 <표>는 ‘가’ 곤충도감에 기록된 분류군별 경제적 중요도와 ‘갑 ~ 병’국의 종의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분류군별 경제적 중요도와 ‘갑 ~ 병’국의 종의 수
(단위: 종)

분류군	경제적 중요도	국가			전체
		갑	을	병	
무시류	C	303	462	435	11,500
고시류	C	187	307	1,031	8,600
메뚜기목	A	297	372	1,161	34,300
강도래목	C	47	163	400	2,000
다듬이벌레목	B	12	83	280	4,400
털이목	C	4	150	320	2,800
이목	C	22	32	70	500
총채벌레목	A	87	176	600	5,000
노린재목	S	1,886	2,744	11,300	90,000
풀잠자리목	A	52	160	350	6,500
딱정벌레목	S	3,658	9,992	30,000	350,000
부채벌레목	C	7	22	60	300
벌목	S	2,791	4,870	17,400	125,000
밀들이목	C	11	44	85	600
벼룩목	C	40	72	250	2,500
파리목	S	1,594	4,692	18,000	120,000
날도래목	C	202	339	975	11,000
나비목	S	3,702	5,057	11,000	150,000

※ 해당 국가의 분류군별 종 다양성(%) = $\frac{\text{해당 국가의 분류군별 종의 수}}{\text{분류군별 전체 종의 수}} \times 100$

<보 기>

- ㄱ. 경제적 중요도가 S인 분류군 중, ‘갑’국에서 종의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분류군은 노린재목이다.
- ㄴ. 경제적 중요도가 A인 분류군 중, ‘을’국에서 종의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분류군은 총채벌레목이다.
- ㄷ. 경제적 중요도가 C인 분류군 중, ‘갑’국의 분류군별 종 다양성이 가장 낮은 분류군은 털이목이다.
- ㄹ. 경제적 중요도가 S인 분류군 중, ‘병’국의 분류군별 종 다양성이 10 % 이상인 분류군은 4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짐. 단 전체는 갑+을+병이 아님.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가정형)

경제적중요도 S중 → 노린재, 딱정벌레, 벌, 파리, 나비
→ 갑의 종 순위 = 나비, 딱정벌레, 벌, 노린재, 파리 순이다.
→ 노린재는 3위가 아니다.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ㄹ (가정형) (이미 S분류를 구했으니까)

경제적중요도 S중 → 노린재, 딱정벌레, 벌, 파리, 나비
병국의 다양성은 10%이상이 4개
→ 다양성 10%이하인건 1개?

→ 딱정벌레 = $\frac{30,000}{350,000} < 10\%$, 나비 = $\frac{11,000}{150,000} < 10\%$

→ 2개이다. → 옳지 않다.

④, ⑤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18. 다음 <표>는 ‘갑’공기업의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2개 사업 (A, B)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면?

<표 1> A와 B사업의 평가 항목별 원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 항목	A 사업	B 사업
사업적 가치	경영전략 달성 기여도	80	90
	수익창출 기여도	80	90
공적 가치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90	80
	사회적 편익 기여도	90	80
참여 여건	전문인력 확보 정도	70	70
	사내 공감대 형성 정도	70	70

※ 평가 항목별 원점수는 100점 만점임.

<표 2> 평가 항목별 가중치

구분	평가 항목	가중치
사업적 가치	경영전략 달성 기여도	0.2
	수익창출 기여도	0.1
공적 가치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0.3
	사회적 편익 기여도	0.2
참여 여건	전문인력 확보 정도	0.1
	사내 공감대 형성 정도	0.1
계		1.0

<조 건>

-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각 사업의 최종 점수는 평가 항목별 원점수에 해당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함.
- A와 B사업 중 최종 점수가 더 높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함.

<보 기>

- ㄱ. 각 사업의 6개 평가 항목 원점수의 합은 A사업과 B사업이 같다.
- ㄴ. ‘공적 가치’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은 ‘참여 여건’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보다 작고, ‘사업적 가치’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보다 크다.
- ㄷ. ‘갑’공기업은 A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 ㄹ.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가중치와 ‘수익창출 기여도’ 가중치를 서로 바꾸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신규 사업은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총점이 더 높은 사업 → 공통과 차이

<관점의 적용>

평가 항목	공통	A 사업(차이)	B 사업(차이)
경영전략 달성 기여도	80	0	10
수익창출 기여도	80	0	10
정부정책 지원 기여도	80	10	0
사회적 편익 기여도	80	10	0
전문인력 확보 정도	70	0	0
사내 공감대 형성 정도	70	0	0

보기 ㄱ (단순 확인)
차이 값을 보면 A도 10+10, B도 10+10이다.
→ 옳다.
④,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계산이 아닌 가공)
<표2>를 보면, 공적가치의가중치의 합 = 0.5이다.
이미 절반을 이상 차지 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다.
→ 옳지 않다.
①,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ㄷ (단순 확인)
A사업의 경우 공적가치에 차이점수가 10점씩 남아있고,
B사업의 경우 사업적가치에 차이점수가 10점씩 남아있다.
→ A사업이 당연히 높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9. 다음 <표>는 2016 ~ 2019년 ‘갑’조사기관이 발표한 이미지 분야 및 실체 분야 국가브랜드 상위 10개국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A ~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6 ~ 2019년 국가브랜드 상위 10개국					
순위	연도	2016	2017	2018	2019
	분야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실체
1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2		일본	캐나다	독일	독일
3		스웨덴	일본	미국	영국
4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5		독일	영국	영국	스위스
6		미국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7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8		캐나다	스웨덴	호주	프랑스
9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10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1) 국가브랜드는 이미지 분야와 실체 분야로 나누어 각각 순위가 결정되며 공동 순위는 없음.
 2) 조사대상 국가는 매년 동일함.

<보고서>

최근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브랜드 순위
 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갑’조사기관이 발표한
 2016 ~ 2019년 이미지 분야 및 실체 분야 국가브랜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의 이미지 분야 순위는 매년 A 하고 있
 다. 또한, 이 기간에 연도별 이미지 분야 순위가 모두 상위
 10위 이내에 든 국가는 총 8개국이다.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가 상위 10위 이내에 든 국가는
 모두 2019년 실체 분야 순위도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다.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 상위 10개국 중 2019년 이미지
 분야 순위와 실체 분야 순위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B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미지 분야 순위 상위
 10개국 중 2016년에 비해 2017년 이미지 분야 순위가 상승
 한 국가는 총 C 개국이었고, 특히 캐나다의 높은 순위
 상승이 눈에 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비교하여 이미지
 분야 순위가 하락한 국가가 많았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지 분야 순위가 상승하여 주목받고 있다.

- | | | | |
|---|----|-----|---|
| | A | B | C |
| ① | 상승 | 캐나다 | 6 |
| ② | 상승 | 프랑스 | 5 |
| ③ | 상승 | 프랑스 | 6 |
| ④ | 하락 | 스웨덴 | 5 |
| ⑤ | 하락 | 캐나다 | 6 |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상위 10개국에 대한 조사이다.

2019년은 실체순위에 대한 정보도 있다.

<관점의 적용>

빈칸 A

미국의 이미지는 매년 (상승/하락)

→ 2019년의 미국이 1등이다. 과연 하락일 수 있을까?

→ 상승

④,⑤번 선지 소거

빈칸 B

이미지와 실제의 순위차이가 가장 큰 것은 (캐나다/프랑스)이다.

→프랑스가 훨씬 크다.

①번 선지 소거

빈칸 C

2017년에 이미지가 상승한 국가는 (5/6) 개국이다.

상승한 국가

= 독일, 캐나다,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 6개국이다.

(※ 2016년 상위 10개국 하락을 기준을 보면 틀린다. 왜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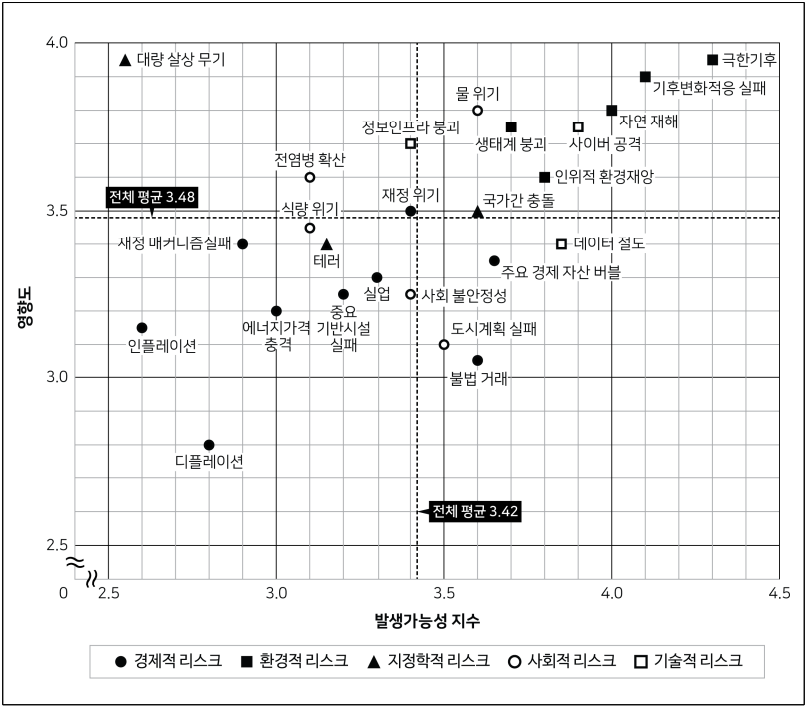
→ 6이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20. 다음 <그림>은 W 경제포럼이 발표한 25개 글로벌 리스크의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가능성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글로벌 리스크의 분류와 영향도 및 발생가능성 지수



- ① 모든 환경적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지수 대비 영향도의 비는 1 이상이다.
- ② 영향도와 발생가능성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는 ‘대량 살상 무기’이다.
- ③ ‘에너지가격 충격’의 영향도 대비 발생가능성 지수의 비는 1 이하이다.
- ④ 영향도와 발생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하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는 영향도나 발생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상인 경제적 리스크의 수보다 많다.
- ⑤ 모든 환경적 리스크는 영향도와 발생가능성 지수가 각각의 ‘전체 평균’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x,y축에는 생략이 존재한다.

전체평균에 대한 선이 존재한다.

●,■,▲,○,□의 뜻은 모두 다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frac{\text{영향도}}{\text{발생가능성 지수}} = \frac{y}{x}$$

■의 기울기는 모두 1이상인가?

→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적용실패, 극한기후의 경우
기울기가 1보다 작다. → 옳지 않다.

(※ y축의 길이보다 x축의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서 시각점 함
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함정을 탈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할까?)

답 : ①

문 21. 다음 <표>는 ‘갑’국의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
(단위: 종)

분류 \ 지정	멸종위기종	멸종위기 I 급	멸종위기 II 급
포유류	20	12	8
조류	63	14	49
양서·파충류	8	2	6
어류	27	11	16
곤충류	26	6	20
무척추동물	32	4	28
식물	88	11	77
전체	264	60	204

※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 I 급과 멸종위기 II 급으로 구분함.

- ① 멸종위기종으로 ‘포유류’만 10종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전체 멸종위기종 중 ‘포유류’의 비율은 10 % 이상이다.
- ② 각 분류에서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 급의 비율은 ‘무척추동물’과 ‘식물’이 동일하다.
- ③ 각 분류의 멸종위기종에서 5종씩 지정을 취소한다면, 전체 멸종위기종 중 ‘조류’의 비율은 감소한다.
- ④ 각 분류에서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I 급의 비율은 ‘조류’가 ‘양서.파충류’보다 높다.
- ⑤ ‘포유류’를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각 분류의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I 급의 비율은 각 분류의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 급의 비율보다 높다.

<문제 유형>

-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멸종위기종 = I 급 + II 급, 즉, 멸종위기종 = 전체값
전체가 주어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확인)
포유류만 10종이 추가 된다면, 전체의 10% 이상인가?
 $\frac{20+10}{264+10}=\frac{30}{274}>10\% \rightarrow$ 옳다.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것과, 단순히 더하기를 하는 것 어떻게 더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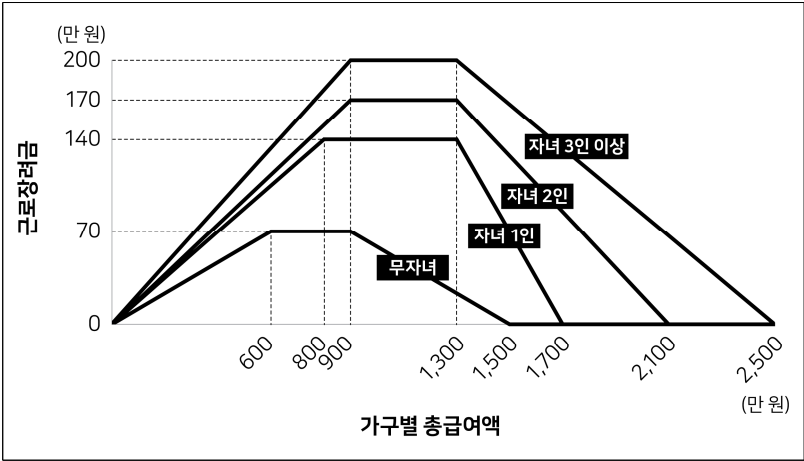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 I 급비율이 같다
무척추동물 $\frac{4}{32}=\frac{1}{8}$, 식물 $\frac{11}{88}=\frac{1}{8} \rightarrow$ 같다. $\rightarrow$ 옳다.

보기 ③ (가중평균의 응용-2)
각각 5종씩 취소한다면, 전체멸종위기종 35종이 취소된다.
즉, $\frac{63-5}{264-35} \rightarrow \frac{63}{264}>\frac{5}{35}$ 이므로, 비율은 증가한다.

답 : ③

문 23. 다음 <그림>은 2019년 ‘갑’국의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20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은 2018년 가구별 자녀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보 기>

- ㄱ. 2018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140만 원이다.
- ㄴ. 2018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무자녀 가구는 2018년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 ㄷ. 2018년 총급여액이 2,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2018년 총급여액이 600만 원 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보다 적다.
- ㄹ. 2018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그림> →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다르게 받는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2018년 총급여액이 1,000만원일 때,
자녀 1인의 선은 140만이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ㄴ

보기 ㄴ (단순 확인)

2018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일 때, 무자녀의 선.
600만원까지는 정비례선이지만, 600~800은 직선이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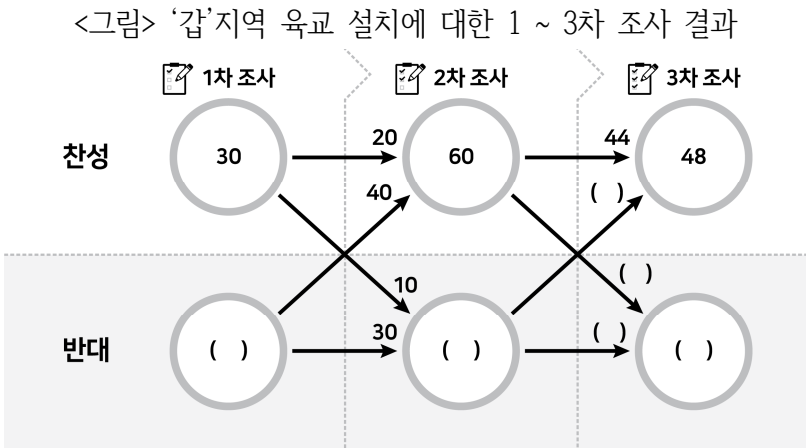
보기 ㄹ (단순 확인)

2018년 총급여액 2,000만원 일 때,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도 많은가?
→ 무자녀에서도 0원, 자녀1인에서도 0원이다. →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24. 다음 <그림>은 ‘갑’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육교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3차례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1 ~ 3차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같고, 무응답과 복수응답은 없음.
 2) 예를 들어, 찬성 30 → 20 찬성 60은 1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30명 중 20명이 2차 조사에서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2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60명임을 의미함.

- ① 3차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130명 이상이다.
- ② 2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차 조사에서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명이다.
- ③ 2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이다.
- ④ 1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3차 조사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5명 이상이다.
- ⑤ 1 ~ 3차 조사에서 한 번도 의견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30명 이상이다.

<문제 유형>

-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모두 같다.
 → 1차, 2차, 3차의 합계는 모두 동일하다.

화살표의 경우 1차에서 2차로 이동한 선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3차조사의 응답한 사람수 = 1차조사에 응답한 사람수
 1차의 경우
 찬성 = 30,
 1차반대 → 2차 찬성 = 40, 1차반대 → 2차 반대 = 30
 → 반대 = 70명
 1차 조사 = 100명이다. 3차도 당연히 100명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2차 조사에 반대 → 3차 조사에 반대
 2차 조사의 합계 인원 = 100명, 찬성 = 60명, 반대 = 40명
 40명중 4명은 3차조사에서 찬성을 하였다.
 즉, 3차조사에 찬성을 한사람은 36명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2차 조사에서 찬성 중 3차 조사에 반대
 2차에서 찬성의 합계 = 60명, 이중에 44명은 찬성으로
 그렇다면, 16명은 반대로 →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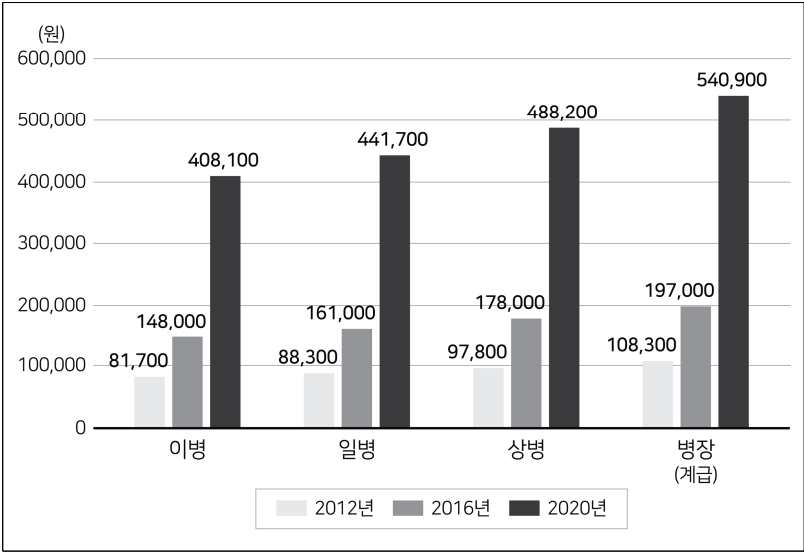
보기 ④ (극단으로)

1차조사에서 반대한 사람 중 3차조사에서 찬성이 45명이상?
 1차조사 반대 = 70명
 2차조사 찬성 = 40명, 2차조사 반대 = 30명
 → 3차 조사 찬성을 최소로 만들어보자
 찬성 40명을 우선 반대로 보내자 (16명)
 반대 30명을 우선 반대로 보내자
 → 3차 반대인원 = 52명, 그중에 16명은 찬성에서 온 것
 즉, 36명은 반대에서 반대로옴, 그렇다면 30명 모두가 갈 수 있다.
 → 3차조사 최소 = (40-16) = 24명 → 옳지 않다.

답 : ⑤

문 25. 다음 <그림>과 <표>는 조사연도별 ‘갑’국 병사의 계급별 월급과 군내매점에서 판매하는 주요품목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조사연도별 병사의 계급별 월급



<표> 조사연도별 군내매점 주요품목 가격
(단위: 원/개)

조사연도 \ 품목	캔커피	단팥빵	햄버거
2012	250	600	2,400
2016	300	1,000	2,800
2020	500	1,400	3,500

- 이병 월급은 2020년이 2012년보다 500 % 이상 증액되었다.
- 2012년 대비 2016년 상병 월급 증가율은 2016년 대비 2020년 상병 월급 증가율보다 더 높다.
- 군내매점 주요품목 각각의 2012년 대비 2016년 가격인상률은 2016년 대비 2020년 가격인상률보다 낮다.
- 일병이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하여 군내매점에서 해당 연도 가격으로 140개의 단팥빵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2016년이 2012년보다 15,000원 이상 더 많다.
- 병장이 한 달 월급만을 사용하여 군내매점에서 해당 연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햄버거의 최대 개수는 2020년이 2012년의 3배 이하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그림>의 연도와 <표>의 연도는 동일하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올올올 -2)

$$\frac{408,100}{81,700} < 6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보기 ② (단순 확인)

가시적으로 2020년의 증가율이 더 크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올올올 - 1)

단팥빵의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폭 = 400

단팥빵의 2016년 대비 2020년 증가폭 = 400

증가폭이 동일하다. → 증가율은 당연히 내려갔다.

→ 옳지 않다.

보기 ④ (계산이 아닌 가공)

일병이 140개의 단팥빵을 구매

2016년의 경우

단팥빵의 가격 1,000 × 140 = 140,000

일병의 월급 = 161,000

가격 차이 = 21,000원

2012년의 경우

단팥빵의 가격 = 600 × 140 = 200 × 420 = 84,000

일병의 월급 = 88,300

가격 차이 = 4,300원

→ 15,000원 이상 차이 난다. → 옳다.

답 : ④